

천문유초(天文類抄)에 기록된 사신동물천문도(四神動物天文圖) 연구

양홍진[†], 박명구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A STUDY OF SASIN-ANIMAL SKY MAP ON CHONMUNRYUCHO

Hong-Jin Yang[†], Myeong-Gu Park
Department of Astronomy and Atmospheric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E-mail: hjyang@knu.ac.kr

(Received November 9, 2002; Accepted February 3, 2003)

요약

천문유초(天文類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문서적으로 세종대(世宗代) 천문학자 이순지(李純之 ?-1465)가 편집하였다. 우리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28수(宿) 별자리를 사신-동물모양(이하 ‘사신동물천문도’)으로 표현한 자료를 찾아 연구하였다. 사신동물천문도(四神動物天文圖)는 사방으로 나누어진 네 개의 별자리를 사신으로 잘 알려진 동-창룡(蒼龍), 서-백호(白虎), 남-주작(朱雀) 그리고 북-현무(玄武)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신과 달리 특이한 것은 백호 옆에 동양의 전설 속 동물인 기린(麒麟)이 같이 표현되어 있다. 각각의 동물들은 동양의 전통적 별자리 표현법인 28宿의 2 ~ 7宿의 별자리를 통해 표현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논설(論說)에도 나와 있듯이 고구려는 조선과 천문학적으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무덤 벽화이다. 이 벽화에 많은 별, 별자리와 함께 천문유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신동물들도 그려져 있음은 이미 고구려 시대에도 하늘을 사신동물 별자리로 보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28宿와 고구려 무덤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신과 기린을 이용해 천문유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신동물천문도도 형상화시켜 보았다.

ABSTRACT

Chon-Mun-Ryu-Cho (天文類抄), written (edited) by Lee Sun-Ji (李純之) during the period of King Se-Jong, is a representative astronomy book of Cho-Sun (朝鮮: A.D. 1392 -1910) Dynasty. We find and study in the first page of the book; the description of 28 oriental constellations as a Sasin (four mythical oriental animals)-animal sky map which is not widely known yet. The map consists of four groups of constellations, each of which represents the Sasin: Chang-Ryong (蒼龍: dragon), Baek-Ho (白虎: tigers with Ki-Rin [麒麟: Oriental giraffe]), Ju-Jak (朱雀: Chinese phoenix), Hyun-Mu (玄武: a tortoise intertwined with a snake). Each group (animals) spans 2 ~ 7 of 28 oriental constellations (宿). As we know from the illustration (論說) of the

[†]corresponding author

Chon-Sang-Yol-Cha-Bun-Ya-Ji-Do (天象列次分野之圖), a representative sky map of Cho-Sun Dynasty, astronomy in Cho-Sun Dynasty is closely related to that in Go-Gu-Ryer (高句麗: B.C. 37 -A.D. 668) Dynasty. Since these Sasin-animals appear in most mural paintings of Go-Gu-Ryer (高句麗) tombs, visualization of sky with these animal constellations could have been established as early as in Go-Gu-Ryer Dynasty. We also reconstruct this "A Sasin-animal Korean sky map" based on the shapes of the Sasin and Ki-Rin from Go-Gu-Ryer paintings and 28 oriental constellations in Chon-Sang-Yol-Cha-Bun-Ya-Ji-Do.

Keywords: historical astronomy, Korean sky map, Sasin-animal sky map

1. 머리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서양에서 전래된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계절의 별자리를 황도 12궁(黃道 12宮)과 연결시켜 별점을 치고 흥미를 가지는 일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서양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의 고대 천문학은 과학적인 천문학(astronomy)과 흥미로운 점성술(astrology)로 그 자리 매김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양보다 더 긴 역사와 많은 정확한 관측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동양 천문학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별자리 모양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서양의 황도 12궁은 각각 신화의 내용에 대한 모양을 하늘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동양의 경우 박창범(1998)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별자리에 대한 동정(同定)과 자료 연구만이 되어 있을 뿐, 점성술적인 내용이나 하늘에서 그려내고 생각한 모양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천문학 역사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우수성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온 꾸준한 천문관측 자료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천대(觀天臺)인 신라 첨성대로부터 조선의 많은 관천대로 이어져온 많은 천문유물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조선 초기는 천문학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태조대(太祖代)에는 수많은 천문학 기술이 집적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석각되었다. 이것은 1247년에 석각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순우 천문도(淳祐天文圖) 보다 비록 시대적으로 뒤지기는 하지만 각 별들의 크기를 밝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매우 과학적인 천문도이다. 세종대(世宗代)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천문의기 제작과 역법의 정리 그리고 천문관제의 정비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천문서적인 천문유초가 편찬된다. 이 책은 조선후기까지 대표적 전문 천문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며 아직까지도 많은 목판본과 필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천문유초는 천문서적으로서의 대표성이 외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당시 천문학적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상하권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상권은 별자리를 설명한 동방 창룡칠수(東方 蒼龍七宿), 북방 현무칠수(北方 玄武七宿), 서방 백호칠수(西方 白虎七宿), 남방 주작칠수(南方 朱雀七宿), 중궁(中宮) 등과, 28수(宿) 그리고 삼원(三垣)인 태미원(太微垣), 자미원(紫微垣), 천시원(天市垣)의 성좌도(星座圖)와 성수도(星數圖)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하권은 천지(天地), 일(日), 월(月), 성신(星辰), 세성(歲星), 형혹(熒惑), 진성(鎮星), 태백(太白), 서성(瑞星), 유성(流

星), 비성(飛星), 요성(妖星), 오색지혜성잡변(五色之彗星雜變), 객성(客星), 서기(瑞氣), 요기(妖氣) 등이 열기(列記)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 천문유물 중 하나인 천문도의 경우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은 대부분 무덤에 그려진 별자리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많은 천문관련 그림은 고구려의 매우 소중한 천문자료이다. 이들에 대한 천문학적 연구는 북한의 리준걸(1984)과 남한의 김일권(1996a)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약 80여개의 벽화 무덤에서 각각 21기와 22기의 별자리 그림 무덤을 정리해 보고하였는데 이는 또한 천문학적 관점에서의 고분벽화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문유초(天文類抄) 상권의 첫 부분에 기록된 사신-동물 모양 천문도를 찾아내어 이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리준걸(1996)과 김일권(1996b)에 의해 연구된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많은 별그림 자료를 토대로 이와 관계된 사신과 동물 그림을 연구하였으며, 아울러 천문유초에 설명된 별자리 내용과 고구려 고분벽화 그림과의 연관성을 통해 사신동물천문도(四神動物天文圖)도 형상화해 보았다.

2. 천문유초(天文類抄)

천문유초는 조선 세종대 이순지(李純之)가 편집(編輯)한 책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천문학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당시 조선시대 유학자(儒學者)의 필독서이며 잡과에 응시하여 천문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암기해야하는 책이었다. 천문유초는 조선시대 천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석각천문도(石刻天文圖)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가 만들어진지 오래지 않아 편찬된 책으로, 세종 26년(1444년)에 이순지와 김담(金淡)이 편찬한 독자적 천문역법서적인 칠정산내·외편과 더불어 천문학의 황금기인 세종대에 만들어진 대표적 천문학 자료 중 하나이다. 천문유초는 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별과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적어놓은 실질적인 천문학 서적이다. 책의 앞부분에는 28수 별자리를 각각 설명하기에 앞서 하늘을 동방(東方), 북방(北方), 서방(西方), 남방(南方)과 중궁(中宮)으로 나누어 28수 별자리를 이용해 동물 모양으로 형상화하였다. 크게는 동서 남북의 방향에 따라 청룡(靑龍[蒼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의 사신(四神)으로 표현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동쪽에는 청룡, 북쪽에는 거북과 뱀이 얹혀 있는 현무, 서쪽에는 백호, 세마리 새끼호랑이와 기린, 남쪽에는 주작 그리고 가운데는 황룡으로 사신 개념보다는 더 자세히 표현하였다.

사신도(四神圖)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보여주듯이 방위의 의미로 많이 알려져 왔으나 놀랍게도 전문적 천문학서적인 천문유초 앞부분에서는 사신이 기린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수대(隋代) 천문서적인 단원자(丹元子)의 보천가(步天歌)와 조선 후기에 보천가의 오차누적을 고려해 다시 편찬한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에는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내용이다. 이러한 독창적인 내용의 추가는 당시 조선 전반에 걸쳐 중국의 보천가가 널리 읽혀진 가운데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전문 천문서적을 만들며 새롭게 정리되었다는 것과 책의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로 생각할 수 있다.

천문유초 앞부분에 새롭게 기록된 내용은 28수 별자리를 사신과 동물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동양 별자리로 하늘을 바라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천문유초가 서적으로는 잘 알려진 반면 하늘의 모습을 사신과 동물로 표현한 이 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연구한 천



그림 1. 천문유초의 사신 동물 천문도 원문(李純之 世宗代).

문유초 앞부분은 짧은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그려보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천문유초에 기록된 사신동물천문도 설명의 원문 부분이며, 표 1은 이 내용을 해석, 정리한 자료이다.

천문유초는 네 방향 이외에 가운데 중궁(中宮)도 황룡(黃龍)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궁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28수를 이용한 사방(四方)의 설명보다 간략하다.

”중궁은 황룡으로 표현되는데 현원성(軒轅星)으로 그 몸을 이루고 있으며, 머리는 성수(星宿)와 장수(張宿)를 베고 있고 꼬리는 류수(柳宿)와 정수(井宿)에 걸려 있으며 몸은 삼태성(三台星)에 비추고 있다.”

3. 고구려 고분벽화와 사신도(四神圖)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설(論說)에도 고구려와 조선의 천문관계가 언급되었듯이 고구려는 여러 곳에서 천문 관련 기록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자료로 고구려 평양성 주변을 그린 평양진도(平壤全圖)에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오는 고구려 첨성대 위치를 지도상에 그리고 있으며, 고분벽화에는 많은 천문 기록이 남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벽화 무덤은 약 80기 정도이다. 북한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중 21기에 별자리 그림이 알려져 있으며(리

표 1. 천문유초의 사신 동물 천문도 원문 정리.

정기(精氣)	28수(宿) 별자리	그림 설명
동 쪽 (青龍,蒼龍)	청룡 (각항저방심미기 (角亢氐房心尾箕)	氐-가슴, 房-배, 箕-배설물
서 쪽 (白虎)	백호 (奎婁胃昴畢자사)	奎-백호, 婁危昴-새기호랑이, 畢-호랑이, 觜-기린머리, 參-기린몸
남 쪽 (朱雀)	주작 (井鬼柳星張翼軫)	井-머리, 鬼-눈, 婁-부리, 星-목, 張-목에 먹이 넣는곳, 翼-깃, 軫-꼬리
북 쪽 (玄武)	현무 (斗牛女虛危室壁)	斗-뱀과 거북이 얹힌 모양, 牛-뱀, 女-거북, 虛危室壁-뱀과 거북이 얹혀 올챙이 같은 모양

준걸 1996), 이를 다시 확인 정리하여 김일권(1996b)은 22기의 고분에서 별자리 그림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일권(1996a)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기 정도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으며, 남두육성이 그려져 있는 12기는 모두 북두칠성과 같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분벽화의 별그림 중에는 별자리만이 독립적으로 그려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벽화에는 다른 그림들과 함께 섞여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김일권(1996b)의 자료에 추가하여 6기의 새로운 별그림 무덤을 확인하였다. 새롭게 찾은 별그림 무덤은 통구5-4호, 통구5-5호, 강서큰무덤, 강서중무덤, 오희분4호 그리고 오희분5호 무덤으로 이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별 그림 무덤은 모두 28기이다. 추가된 6기의 무덤 또한 다른 무덤 자료와 같은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8기의 벽화 대부분에서 일상·월상(日象·月象)과 함께 사신도도 같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천문유초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사신(青龍, 白虎, 朱雀, 玄武)은 방향의 의미와 함께 별자리와의 연계성도 갖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사신의 요소는 김일권(1996b)의 자료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6기의 별그림 고분을 정리한 표 2에서도 보이듯이 초기 별자리 고분에는 없다가 5C 전반 춤무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천왕지신무덤과 우산리 2호 무덤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등장한다. 또한 김성칠(1997)은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의 사신도 출현을 3C로 추정하며 무덤에 벽화가 그려지던 첫 시기부터 이미 출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4C 이전에는 사신 관념이 천문요소로 이해되기보다는 무덤의 수호신 기능이나 사방위(四方位)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가 5C 이후로 하늘 세계의 일원으로 승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6C 전반인 집안 5호 무덤에 이르러서는 중앙 천장의 뚜껑들을 장식하던 연꽃 문양이 사신도에 의해 대체되며 사신 그림이 정점에 이르는 듯한 경향을 보여준다(김일권 1999). 벽화의 사신도 그림은 무덤 벽면에 독립적으로 그려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별이나 다른 그림과 함께 그려져 있다. 집안 5호 무덤의 경우에는 황룡이 그려진 천장 돌 아래 네 받침돌에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그리고 해와 달이 그려져 있으며, 약수리 무덤에는 청룡, 백호와 함께 동서 쌍성과 해, 달이 같이 그려져 있다. 또한 약수리 무덤의 안칸 남쪽에는 주작과 함께 28수중 하나인 묘수(昴宿, Pleiades)가 그려져 있다. 묘수는 삼수(參宿, Orion)와 함께 동양과 서양이 같은 모양의 별자리로 그리는 것인데, 약수리 무덤의 것



그림 2. 삼재도회(왼쪽)(王折纂輯 1970)와 강서 큰무덤(오른쪽)의 기린 모습.

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묘수 그림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이러한 사신도 외에도 하늘의 은하수와 견우 칙녀 별들을 형상화된 모습으로 표현한 덕홍리 무덤 등 여러 별자리 관련 무덤들이 있다. 무덤 중에는 28수 전체가 그려진 것도 여럿 있다. 평안남도에 있는 덕화리 2호와 진파리 4호 무덤은 이미 28수의 별자리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진파리 4호의 경우에는 금박을 입힌 별자리 모양과 함께 28수 이름까지도 별자리 옆에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초의 28수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외에도 복사리, 씨름, 춤, 우산리 1호와 2호 무덤의 별자리 그림은 28수의 방향과 일치하게 그려져 있다(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4). 고구려 무덤에는 사신과 별 외에도 여러 동물과 인물 그림이 나타나 있다. 천문유초에 사신과 함께 하늘의 모습으로 표현된 기린(麒麟)도 여섯 개의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벽화에 나타난 기린은 사신과 같이 동양의 상상의 동물인데 별이나 사신과 함께 그려져 있다. 중국 명대(明代)에 편찬된 백과사전 형식의 삼재도회(三才圖會)는 기린을 한 개의 뿔을 가진 동물로 봄은 노루, 꼬리는 소, 발은 말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고구려 강서 큰 무덤에 있는 기린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많은 별과 별자리 뿐만 아니라 5C 이후부터는 사신이 천문학과 밀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삼재도회로부터 알아낸 천문유초의 기린도 별과 함께 그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사신동물천문도 형상화(形象化)

천문유초 앞부분에 기록된 사신과 동물모양 별자리는 가운데 황룡과 사방의 28수를 사신과 기린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묘사된 다른 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신의 방위 개념과 관련되어 한의학 서적인 유경도익(類經圖翼) 등에서 28수 별자리를 그 방향에 따라 7수씩 나누어 기록한 것이 현존하는 것의 전부이고 최근에 와서야 중국학자 고노(高魯)에 의해 28수를 이용한 사신의 모양이 제시되기도 했다(北京天文館 1985). 그러나 이 그림이 표현하

표 2.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관련 자료.

번호	고분이름	시기	위치	사				중앙천장과 천장반침돌 (기타 천문관련 그림)
				북 두	남 두	쌍 삼	일 월	
1	안악3호	357년	황남	△			○	해, 달
2	복사리	4C말	황남	○		△	○	해, 달, 별
3	안악1호	4C말-5C초	황남	○	○	△	○	해, 달, 봉황, 기린
4	덕흥리	408년	평남	○	○	○	○	해, 달, 별, 기린, 28수? (천장-견우 직녀, 5개 각색 행성)
5	각저(씨름)	5C초	집안	○	○	○	○	
6	무용(춤)	5C초	집안	○	○	○	○	해, 달, 별, 사신, 기린
7	약수리	5C초	평남	○		○	○	해, 달, 별 (벽면-기린, 묘수)
8	삼실	5C초	집안	○	○		○	해, 달, 별
9	천왕지신	5C중	평남	○		△	○	해, 달, 별, 봉황, 기린
10	별무덤	5C중	평남	○		△	○	별 (안칸-사신, 28수?)
11	장천1호	5C중	집안	◎			○	해, 달, 별, 사신
12	대안리1호	5C후	평남	○			○	별
13	우산리1호	5C후	평남			△	○	별 (28수?)
14	우산리2호		평남					(28수?)
15	쌍기둥	5C말	평남	○		○	○	해, 달, 봉황 (앞칸-청룡, 백호)
16	수립(매산리)	5C말	평남	○			○	(앞칸-해, 달, 북두)
17	덕화리1호	5C말-6C초	평남	○	○		○	해, 달, 별 (앞칸-사신, 벽면-북두)
18	덕화리2호	5C말-6C초	평남	○	○		○	해, 달, 별 (앞칸-사신, 28수)
19	진파리4호	6C초	평남	○			○	28수(금박)와 이름 (안칸-사신, 달)
20	집안4호	6C초	집안	○	○		○	별, 황룡
21	집안5호	6C초	집안	○	○		○	별, 청룡, 백호
22	통구사신	6C후	집안	○	○		○	해, 달, 황룡 (안칸-사신)
23	통구5-4호	6C후	집안				○	해, 달, 용2, 백호 (안칸-청룡, 백호)
24	통구5-5호	6C후	집안				○	해, 달, 용2, 백호 (안칸-청룡, 백호)
25	강서큰	6C말-7C초	평남				◎	용, 봉황, 기린 (안칸-사신)
26	강서중	6C말-7C초	평남				○	해, 달, 봉황 (안칸-사신)
27	오희분4호	7C초	집안	○	○		○	별, 황룡
28	오희분5호	7C초	집안	△	△		○	별, 황룡

(○: 확실한 경우, △: 개연성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 있는 경우, ?: 확정이 어려운 경우)

고 있는 동물의 그림과 종류 뿐 아니라 28수 별자리와의 연결 부분은 천문유초의 것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 우리나라의 천문학은 여러 면에서 꾸준한 역사적 연결을 보여준다. 한반도라는 지역성과 한민족이라는 특성 외에도 천문학은 중요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내용이 바뀔 수 없는 학문이다. 역법의 경우만 보아도 왕조가 바뀌어도 역법과 그 상수는 쉽게 바뀌지 않았음을 잘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천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설(論說)에도 고구려와의 천문학 관계를 기록

하고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 그림이 고려의 무덤 천장으로 이어져 조선 초기의 일부 무덤 천장에까지 별이 그려지고 있음은 우리 나라 천문의 연속적 관계를 더욱 명확히 알려준다. 이러한 역사적 연결성에서 고려의 천문은 그 관측기록에서는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으나 유물이나 유적 등에서는 개성의 첨성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고구려의 경우는 관측기록에 있어서는 신라, 백제와 더불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고분벽화에서 별과 그림, 심지어 28수의 별자리까지 보여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천문유초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석각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설에서도 연관성이 언급된 고구려 자료 중 많은 천문-그림자료가 있는 고분벽화에서 자료를 찾아 형상화하였다.

사신(四神)과 기린(麒麟)은 5C부터 벽화에 나타나고 있는데, 초기에는 해학적이고 대략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후대에 오면서 역동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6-7C로 추정되는 평안남도의 강서큰 무덤에는 사신과 기린의 모습이 함께 나와 있고 비교적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사실적 표현으로 그려져 있어 사신도와 기린의 모습은 이들 자료의 것을 이용하였다. 동방칠수(東方七宿)에 해당하는 사신은 청룡(青龍[蒼龍])으로, 용의 모양만이 아니라 배설물까지도 별자리와의 위치 설명이 되어 있어 주작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있는 모양을 쉽게 별자리와 맞출 수 있다. 북방칠수(北方七宿)는 현무(玄武)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거북과 뱀이 서로 얹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현무의 모습은 서로 얹혀 있어 그 머리 방향을 정하기 어려웠으나 일반적으로 거북이 머리를 두고 있는 방향보다 바깥쪽에서 뱀이 몸을 감고 있는 벽화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해 머리를 용의 꼬리 쪽으로 두고 서로 얹혀 있는 모습으로 맞추었다. 서방칠수(西方七宿)는 사신의 백호(白虎)에 해당하는데, 기존의 사신모양에서 가장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규수(奎宿)와 펠수(畢宿)는 호랑이를, 루(婁)·위(胃)·묘수(昴宿)는 세 마리 새끼 호랑이 그리고 자수(자宿)는 기린 머리, 삼수(參宿)는 기린 몸으로 설명하고 있다. 호랑이 새끼와 기린은 사신에 새롭게 더해진 것으로 천문유초만의 독특한 내용이다. 규수와 펠수는 모두 호랑이로 표현하고 있으나 다른 세 방향에서의 28수 설명이 순서대로 되어있는 점과 다른 사신 자료 설명의 상세함 등을 고려해 비록 규수와 펠수로 나누어져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한 마리의 호랑이로 맞추었다. 호랑이의 머리방향은 여러 자료에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토라 고분에서는 백호의 머리가 현무쪽을 보고 있지만 대부분 고구려 고분 벽화의 백호는 청룡과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머리를 주작 방향으로 둔 모양으로 맞추었다. 형상화된 그림속에는 우리에게 좀생이별로 잘 알려진 묘수(Pleiades)가 작은 새끼 호랑이 중 한 마리로 표현되고 있다. 남방칠수(南方七宿)는 주작을 나타내고 있으며 28수의 모든 별자리에 주작의 부분 설명을 하고 있다. 주작은 여러 벽화의 그림도 대부분 비슷하고 천문유초의 설명이 자세하기 때문에 쉽게 그림을 완성했다. 사신과 기린은 28수 중에서 작게는 두 개 많게는 일곱 개의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각각은 90도의 각 크기를 넘지 않는 모습으로 한 하늘에서 전체의 모습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맞추어진 동물과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있는 28수 별자리를 이용해 사신동물천문도를 형상화한 것이 그림 3이다. 이 그림은 본 연구 결과를 소개한 1999년 9월 29일자 한국일보에 실렸던 그림으로 28수에 해당하는 사신 동물 모양과 은하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 중 1등성 이상 밝은 직녀성(α Lyr)이 추가되었으며, 이 그림을 위한 그래픽은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의 중궁(中宮)은 중국의 여러 자료나 기존의 사신 개념에는 없던 것으로 천문유초에서는 황룡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네 방향의 자료는 28수 별자리와 연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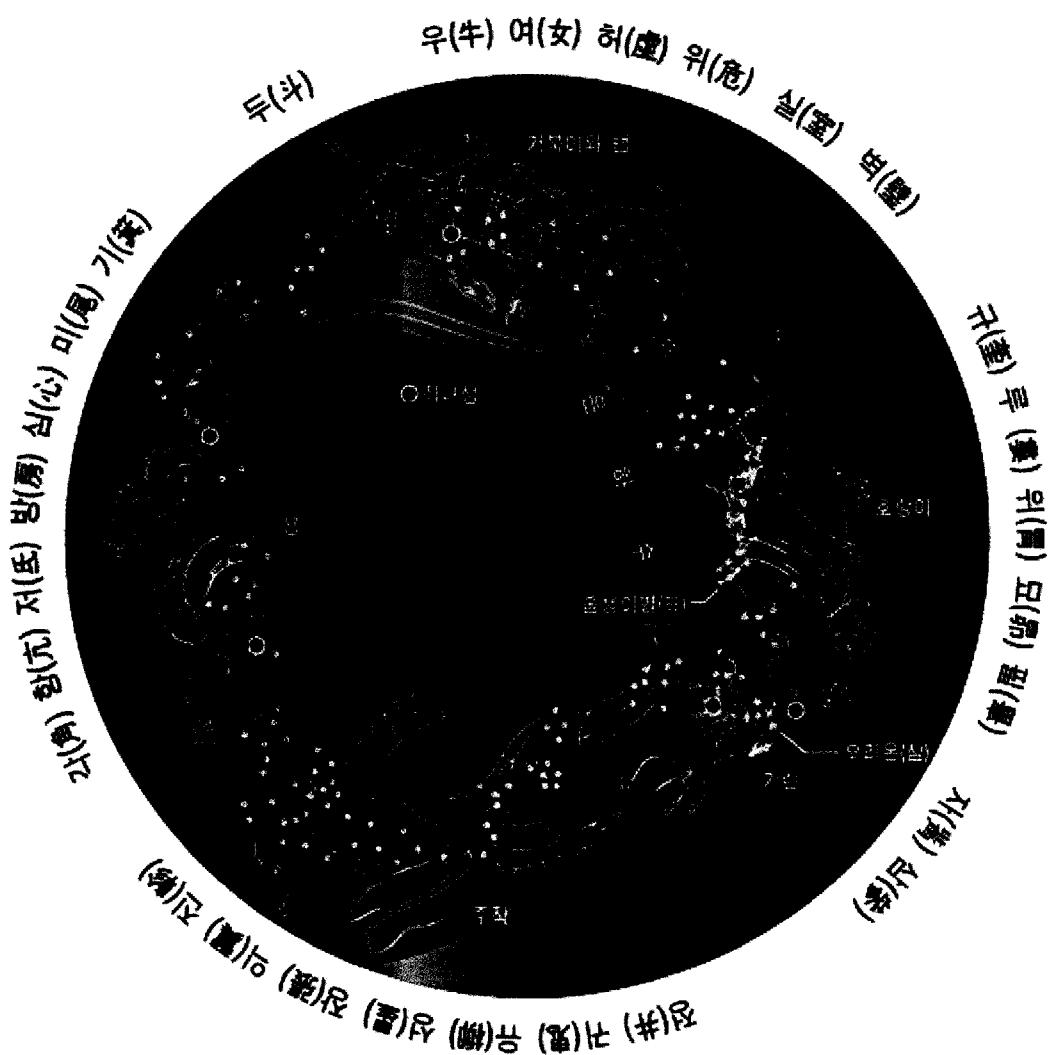


그림 3. 천문유초 자료를 형상화한 사신동물 천문도. 작은 노란색 원으로 그린 별들은 28수 별들이며 이들과 선으로 연결된 빨강색 큰 원의 별들은 1등성 이상으로 밝은 별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 천문도에는 28수 외에 은하수와 28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1등성 보다 밝은 적녀성(α Lyr)이 추가되었다. 이 그림은 1999년 9월 29일 한국일보에 실렸던 것임.

(그래픽: 한국일보 김부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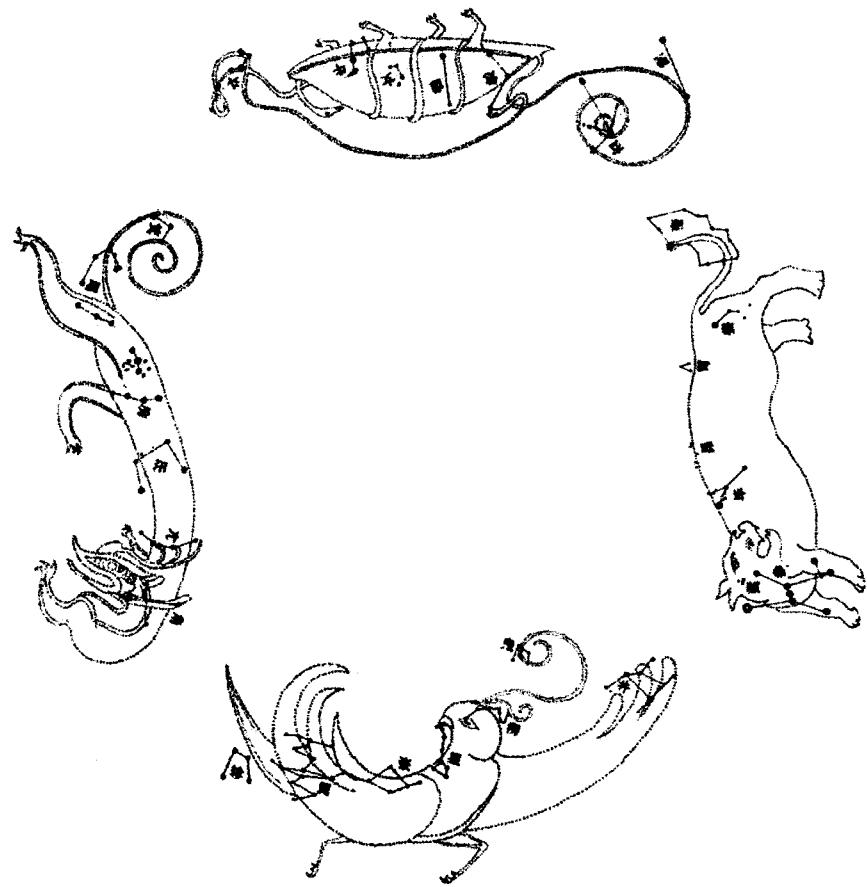


그림 4. 중국 고노(高魯)의 사신 천문도 그림.

어 설명이 자세한 반면, 황룡은 하나의 별로 몸체를 설명하듯이 천문유초의 기록만으로는 다른 것들에 비해 정확히 형상화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또한 표 2에서도 보이듯이 사신 그림보다도 약 2C 가량 늦은 6C부터 벽화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자료만을 제시하고 형상화된 그림에는 제외시켰다.

5. 결론 및 토의

28수 별자리가 사신인 사상(四象)의 개념으로 인식된 것은 회남자(淮南子)의 천문훈(天文訓) 편에 이르러서이다. 그 이전 자료인 요전(堯典)에서 이미 28수를 사방(四方)의 의미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좌전(左傳)의 소공사년(昭公四年)의 기록에 의하면 28수가 사상(四象)의 의미와 함께 그 모양이

생겨남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상(四象)의 설명 중에서 주작에 해당하는 새 모양 설명이 많은데, 요전에 의하면 춘분에 이르러 해가 지고 난 후 동쪽 하늘에 뜨는 별들이 새 모양을 하였다고 주작을 설명하고 있다. 곡례(曲禮)에는 사상(四象)이 별자리와 어우러져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 좌청룡(左青龍), 우백호(右白虎)”로 구체화된다. 중국 동한시대(東漢時代)에 혼천설(渾天說)을 주장한 장형(張衡 A.D. 78-139)은 사상의 구체적 모양을 설명한다. 이러한 28수와 사상의 모양은 뒤에 더욱 구체화되는데 서전(書·傳)에는 사상의 모양뿐 아니라 배치상의 위치까지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방은 七宿로 되어 있으며 각각 하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동쪽은 용의 모양, 서쪽은 호랑이 모양인데 모두 남으로 머리를, 북으로 꼬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새의 모양, 북쪽은 거북이 모양인데 서쪽으로 머리를 동으로 꼬리를 두고 있다(北京天文館 1985).”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의 현대 천문학자 고노(高魯)는 28수를 이용해 사신천문도(四神天文圖)를 그렸다(北京天文館 1985). 고노 그림의 28수 배치를 우리의 것과 같이 맞추어보면 그림 4와 같다. 고노(高魯)의 사신 그림은 사신을 각각의 칠수(七宿)에 걸쳐 놓은 단순한 모양이다. 다만 각수(角宿)는 용의 뿔에, 심수(心宿)는 심장에, 미수(尾宿)는 꼬리에 그려지고 있어, 별자리 이름과 동물의 부분명칭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Rufus(1936)도 28수 별자리를 방향에 따라 사신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청룡만이 별자리 이름에 따라 모양을 맞추어 형상화 되었을 뿐이며 그 모양도 천문유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 중국 기록에 따른 고노(高魯)의 사신천문도(四神天文圖)는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명 천문유초의 사신동물천문도와는 다른 모양이다. 고노(高魯)의 사신천문도에는 사신의 모습만 있으나 우리가 찾아 형상화한 천문유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문도는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포함한 사신의 모습에 서쪽에 기린까지 설명한 독자적 모습의 사신동물천문도이다. 비록 이번 형상화된 그림에서 자료 부족등 여러 이유로 누락된 중앙의 황룡도 우리의 독특한 자료로서 뒤에 새로운 자료와 연구가 진행된다면 천문유초의 자료에 근거한 본 사신동물천문도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천문도가 조선시대 대표적 천문서적인 천문유초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사신동물 별자리를 통해 하늘을 보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현대에 형상화하는 것은 우리의 독창적인 천문사상의 일면을 볼 수 있음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으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2년도 경북대학교 특성화사업팀(KNURT)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이다. 그리고 사신동물 천문도를 그래픽 작업을 통해 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신 한국일보 김부일 기자께도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성철 1997, 조선고고연구, 103, 22
- 김일권 1996a, 백산학보, 47, 51
- 김일권 1996b, 진단학보, 82, 1
- 김일권 1999,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리준길 1984, 고고민속논문집, 9, 2

- 리준걸 1996, 조선고고연구, 100, 21
박창범 1998, 한국과학사학회지, 20, 140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4, 조선기술사2 (서울: 백산자료원), 264
李純之(編纂) 世宗代, 天文類抄
王圻(纂輯) 1970, 三才圖會 (서울: 成文出版社有限公司), 6, 2219
北京天文館(編纂) 1985, 中國古代天文學成就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pp.50-54
Rufus, W. C. 1936, Korean Astronomy (Seoul: The Literary Department Choson Christian Collage)